

미얀마/버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IPB 성명

1910년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인 IPB(국제평화국, International Peace Bureau)는 미얀마/버마 군부가 2021년 국가권력 전체를 장악하고 작년 11월 선출된 의회를 해산하고, 2021년 2월9일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IPB는, 지금 이 시기, 62개 소수민족과 선주민 등을 포함한 5천 6백만 미얀마/버마 민중들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밝힌다.

IPB는 평화, 정의, 민주주의를 강력히 지지하며, 비폭력적 수단과 광범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을 통해 군부의 권력 탈취에 저항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미얀마/버마의 의료, 교육, 여성, 선주민 커뮤니티 및 기타 부문의 조직적 움직임과 연대할 것이다.

IPB는 미얀마/버마 시민사회와 연대하면서, 군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미얀마/버마 민중들에게 강요한 계엄령을 철폐하라.

둘째,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정당하게 선출된 의회에 권력을 반환하라.

셋째,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석방하라.

넷째, 시위대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와 모든 폭력 행위를 중단하라.

다섯째, 인터넷, 전화 등 통신수단의 연결을 복원하고 유지하라.

여섯째, 민주주의, 다양성, 포용성 보장 요구에 귀를 기울여라.

IPB는 유엔, 국제사회의 모든 정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와 세계 시민사회에 요청한다.

첫째, 미얀마/버마 군부의 국가권력 장악을 조건없이 비판해야 한다.

둘째, 2020년 11월 8일 선출된 의회의 복원을 지지, 지원해야 한다.

셋째, 무기 이전 중단 등 미얀마/버마 군부와 모든 협력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미얀마/버마 군부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대중들, 특히 여성, 선주민, 소수민족들처럼 수십 년 동안 군에 의한 공격의 타겟이 되어 온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2011년 첫 선거 이후 지난 10년 동안 미얀마/버마의 민주주의 심화와 법치주의 보장을 위한 글로벌한 집단적 노력이 실패하게 된 계기를 다시한번 되짚어봐야 한다.

IPB는, 우리 모두가 미얀마/버마 민중과 굳건히 연대하고 군사쿠데타와 계엄령에 대한 저항과 오랜 기간 투쟁해 온 미얀마/버마 민중의 염원을 담고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확립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증폭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아 가야하며, 그러하기에 지금은 국제공동체 전체가 성찰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깨닫는다.

IPB와 국제공동체는 연대로서 미얀마/버마 민중들과 함께 할 것이다.